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10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75 호

제 42주기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법공 종령 예하, 창종 정신 본받아 재도약 기회로

위드다르마 20주년, 통권 228호 발간
총지사 소식지에서 출발, 월 1천5백 부 전국으로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42주기를 추모하는 멸도절 추선불사가 지난 달 8일 본산 원정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 원정기념관에는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해 통리원장 우인 정사 등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유가족, 교도들이 참석하여 종조 진영 전에 헌

화와 훈향 정공을 올리는 의식으로 추선 불사를 열었다.

통리원 총무부장 록경 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승원 정사의 사회로 봉행된 추선불사는 개식사와 함께 종령 예하의 추선사를 시작으로 유가삼밀 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어 종조님 육성법문, 종령 법어, 통리원장 우인 정사 인사말, 마지막으

로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회향되었다.

이날 자리에서 승단과 교도들은 원정 대성사의 육성 법문을 함께 들으며 또 한 번 종조의 창종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밀교의 재도약과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다.

종령 법공 예하는 “대성사님께서 교상과 사상의 괴리를 바로잡고 보다 완벽한 정통밀교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며 “변화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수행체계와 종단체제를 확립했듯 창종 50주년을 맞아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법어를 내렸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문화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요즘,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본받아 교화에 더욱 정진해 나가자.”며, 이날 참석 사부대중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종조 원정 대성사는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72년 12월 24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종단을 창종해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긴 밀교의 중흥을 이끌었다. 승가와 재가가 함께 닦는 ‘승속동수’를 핵심으로 ‘시시불공 처처불공’을 종단의 지표로 삼아 흥포와 교화수행에 전력하다 1980년 9월 8일 열반적정의 세계로 들었다.



“법보시 해주시는 덕에 <위드다르마>를 읽으며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종단으로 한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위드다르마> 덕분에 한 달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다며 퀴즈 정답과 함께 청주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였다.

<위드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2003년 10월 총지사에서 소식지 형태의 작은 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올해 10월로 통권 제 228호를 발행하며 발간 20주년을 맞았다.

종단이 불교 흥포와 교화를 위해 매달 초 발행하는 위드다르마(발행인: 우인 정사)는 현재 종단 전국 사원과 교도가 정 뿐만 아니라 군부대, 교정기관 등 교화가 필요한 곳에 월 1천5백 부가 무료 배포되고 있으며, 제작 후원의 손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위드다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에서부터 소소한 일상의 희로애락을 시와 수필 등 여러 장르의 형태로 담아 독자에게 전한다. 현재 총지중 역사의 시작인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와 스승님이 전하는 ‘불교이야기(화령 정사)’, ‘길망에 담긴 이야기(법일 정사)’, ‘십선성취(남해 정사)’가 종단 간행물의 위상을 높여 주고 있다. 또 국내 굴지의 이옥경, 방귀희 작가의 수필 ‘살다보면’과 ‘지혜의 뜨락’은 독자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이밖에도 종단 스승들과 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필자들이 산문과 시, 에세이 등으로 불교영화와 문화재, 차, 여행, 퀴즈 등 80여 페이지를 장식해 주고 있다. 동시에 종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PC와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불교총지중 홈페이지(www.chongji.or.kr) 또는 위드다르마 편집실(02-552-0216)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11면

제 99회 추계 강공회

19~20일, 삼척에서 개최

총기 51년 추계 강공회가 강원도 삼척에서 오는 19, 20일 양일간에 걸쳐 1박 2일 개최된다.

제 99회를 맞는 이번 강공회는 첫날 오후 2시 입제식과 함께 종령 법공 예하의 강훈을 시작으로 승단총회와 스승 강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공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최근 몇 년 간 청송에서 열어 오던 것을

이번에 삼척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에 따라 다음날 오전 회향 후 관불은 산수의 풍치가 절경을 이루어 소금강이라고도 불리는 무릉계곡을 따라 오를 계획이다.

강공회는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씩 전, 현직 승직자들이 모두 모여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 의사 결정을 하는 등 종단 내 가장 주요행사 중의 하나다.

제 163회 중앙총의회 개최

알림

일시 10월 13일(목) 오후 2시
장소 불교총지중 통리원

종/조/법/어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육체적인 생명은 생로병사를 받아야 하는 무상한 생명이고, 정신적인 생명은 상락아정의 열반체인 영원한 생명이다.

지면안내

5면 이달의 법문 / 단음사 남해 정사
6면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12화>

8면 논문 / 『대승장엄보왕경』의 사상 연구
10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총기 51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1년 10월 13일(목) 오후 1시

장소 _ 총지사 서원당

대상 _ 서울경인교구 스승 / 중앙총의회 의원

총기 51년 제 99회 추계 강공회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현직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1년 10월19일(수)~20일(목)

장소 _ 강원 솔비치 삼척

대상 _ 불교총지중 전 스승

종조 원정 대성사 멸도 42주기 추선 불사 화보



원정기념관
종조 진영 전에 스승들이 헌화와 훈향정공의 예를 올리며 왕생성불을 추선하고 있다.



원정기념관
서울경인교구 스승들이 유가삼밀의괘에 따라 광명진언을 염송 중이다.



경주 국광사
대구경북교구는 경주 국광사에서 합동으로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를 봉행했다.



부산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를 비롯한 참석 사부 대중의 서원 '원정대성사' 각령 추선 사바하'

원의회·재단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제197회 원의회와 제133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가 지난달 20일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원의회 전원과 이사회 법우 정사 등이 참석했다. 재단 소유 자산 관련 현황 보고 및 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재단 산하 기관장 임명장 수여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 산하 신임 기관장 임명장 수여식이 지난달 23일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통리원장 우인 정사, 세국 키움센터 이지희 센터장,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원장, 양지어린이집 권기정 대체 원장, 총무부장 록경 정사



제 3기 감수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제 3기 감수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달 20일 통리원에서 열렸다. 감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감수위원회 1기와 2기에 대한 활동을 홍보실로부터 보고 받고, 종단 발행 잡지 위드드라마와 총지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눴다. 또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중단된 전국 사원의 교도 통신원의 교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감수위원회 3기는 해원정, 묘원화, 지현, 보현, 정원 전수, 해광, 남해 정사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통해 종단 발간물이 종지와 교상에 부합하도록 운영과 활동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일본 밀교 '신요엔', 통리원 내방



일본불교 중 밀교 종파 중의 하나인 종교법인 신요엔 정경 국원 한국상임이사가 종단을 방문해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예방하고, 종단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보살의 행원으로 불퇴전의 각오로"



미래의 스승 시무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 간 통리원 유가실에서 진행됐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록경 정사, 승원 정사, 법수연 전수가 시무 교육을 맡았다.

2022년 한국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대주제 | 불교의 수행
주 최 | 한국밀교학회

10.27 10:00
불교총지중 본산(역삼동)

학술대회 시간일정

한국밀교학회 총무이사 명운(김치은)

10: 00 시작 불공 / 불교총지중 록경 정사
개회사 / 한국밀교학회 학회장, 대한불교진각종 교육
원장 효명정사
인사말 /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우인 정사
축사 / 대한불교진각종 도진정사
내빈소개와 사진촬영

사회자 명운(김치은) 진각대학 교수

10: 30 제 1주제 발표 / 천태불교에서의 수행
발표자: 지혜경(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논평자: 이병욱(보조사상연구원 부원장)

11: 15 제 2주제 발표 / 밀교 아자관에 대한 연구
발표자: 화령(이중석)정사, 총지중 법천사 주교
논평자: 수각(김치원)정사, 진각종 보정심인당 주교

12: 00 - 13: 00 점심 및 휴식

사회자 최종남(중앙승가대학교 교수)

13: 00 제 3주제 발표 / 초기불교에서의 수행
발표자: 이필원(동국대학교 교수)
논평자: 김치은(진각대 교수)

13: 45 제 4주제 발표 / 유식불교에서의 수행
발표자: 박재용(동국대학교 연구교수)
논평자: 김성철(금강대학교 교수)

14: 30 휴식 및 다과

사회자 권기현(위덕대학교 교수)

14: 45 제 5주제 발표 / 화엄수행과 보살도의 실천
발표자: 박서연(동국대학교 연구교수)
논평자: 김희(신라대학교 교수)

15: 30 제 6주제 발표 / 조사선의 무수무중
(無修無證)과 당하즉시(當下即是)
발표자: 김진무(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논평자: 최동순(동국대학교 연구교수)

16: 15 제 7주제 발표 / 범사관상에 관한 연구
발표자: 강대현(위덕대학교 연구교수)
논평자: 김지연(동국대학교 HK 교수)

17: 00 폐회사

부산 정각사, 추석 합동 차례 불공 봉행

득락전에서 조상영식 왕생성불 서원



부산 정각사(주교: 법일 정사)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2층 득락전에서 합동 차례 불공을 봉행하고, 조상 영식의 왕생성불을 기원하며, 조상 은혜 감사 불공을 올렸다.

이날 차례 불공에는 정각사 교도와 이웃

주민 불자들이 득락전을 가득 메웠으며, 법일 정사의 집공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불공 동참자들은 오곡백과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조상에 대한 은혜를 다하고자 부처님 전에 추선 불공을 올리며, 영식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정각사 득락전은 조상영식의 왕생성불과 소원성취, 재난불생을 염원하는 성스러운 기도처로 지난 총기 48년 5월 헌공가지불사를 봉행한 이래로 설과 추석, 기제일 등에 조상영식 추선 불공을 올리고 있다.

득락전 정면에는 아미타부처님을 주불로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좌우에 모셔져 있으며, 벽면에 원불이 함께 봉안돼 내부 어디서든 불공할 수 있다. 조상, 조부모, 부모 등의 왕생성불을 기원하는 영식 원불을 모실 수 있으며, 아울러 건강과 소원성취, 재난소멸 등을 부처님께 발원하는 개인 또는 가족의 축원불을 봉안할 수 있다.

법일 정사는 “정각사는 진언밀법도량이자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왕생성불하는 기도도량”이라며,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또 개인 축원불공에도 동참하셔서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자각과 노력

지혜의눈

대한민국, 30-50클럽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 중진국과 후진국 사이 경이로움의 롤모델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선진국 회원인 그룹 B로 격상하였다고 2022년 3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분류기준은 아니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인 30-50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고,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가 현대 서양사회에 남긴 유산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가 예술과 관련된 영역이고, 또 하나가 민주주의이고 마지막으로 철학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전성기를 연 페리클레스(BC. 495~429)의 통치기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완성기인 고전기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완성기이기도 합니다.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를 물리친 이후 파괴된 아테네를 복구하기 위하여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민회(民會)에 참석하는 무산(無産)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였는데,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의 도시국가들과 델로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동맹 국가들에게 거둔 기금을 아테네를 복구하고 민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의 이기적인 행위에 다른 도시국가들은 아테네의 군사력이 두려워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의 번영의 뒤에는 이처럼 아테네에 의한 다른 도시국가들의 수탈이 놓여있는데 이를 아테네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근대 이후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모두 제국주의를 통해 국부(國富)를 형성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였고 뒤이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침략하면서 식민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소위 열강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부(富)는 식민지를 수탈하여 축적된 것으로 결국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열강들의 이기다름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였고 이와 관련된 운동이 1800년대에 영국에서 전개된 선거권 확대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는 경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제국주의적 경제 수탈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식민지 수탈을 통해 국부(國富)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수탈을 경험한 나라로서 선진국에 들어간 것이라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선진국이 아니라 중후진국에 게도 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선진국을 쫓아서 현재의 위치까지 왔지만 한국의 뒤에 있던 수많은 중진국과 후진국에게 한국은 하나의 경이로움이며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내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식민사관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우리의 무지(無知)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또 다른 시야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칼럼리스트 김태원

종립 동해중 동문 이진복 정무수석

지난달 2일 대통령실불자회 초대 회장 취임

불교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제3회 졸업생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민선 3기 부산 동래구청장과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불자회는 지난 9월 2일 오전 11

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통령실 불자회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노력을 통한 공덕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공덕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마음의 등불

관음사 정인화 전수

죄와 복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은 죄와 복으로 말미암아진다. 사람이 선악을 지음에 따라 죄와 복이 다르므로 그림자가 형체를 따름과 같아서, 죽는 자 그 몸은 버릴지언정 그 행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신(神)이 떠나서 행한 바를 따라 왕생하는 것이, 수레바퀴가 아무리 굴러도 땅을 떠나지 못함과 같은 것이다.

〈불교총전 p231 『효경, 孝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관음사 정인화 전수님은 시범사 해광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2023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2023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동해중학교)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 과목 및 선발예정 인원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 학교	비고
화학	1	동해중학교	
기술	1		
합계	2		

2. 응시원서 접수(※우리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2022. 10. 17.(월) 09:00 ~ 10. 21.(금) 18:00 【5일간】
 ※ 공·사립 동시지원자는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확인참조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2022. 10. 5.(수)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새소식/고시·공고)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개전형 방법

가. 추진방법(1차 + 2차 시험 일부 교육청 위탁)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3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필기시험 및 2차 시험 중 실기평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에 위탁 전형하며, 제2차 면접시험은 본 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라 실시합니다.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준은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합니다. 단,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
 ※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2.11. 4.(금)

나. 시험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2022. 10. 5.(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동해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끝

2022년 9월 20일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

화령 정사,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출간

『법구경』 원전 의미에 충실하게 직역, 시를 쓰는 마음으로 다듬어



화령 정사

‘잠 못 드는 자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멀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운회의 밤길은 멀기만 하다.’라는 구

절이나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라는 구절 등은 워낙 유명하여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불교 경전은 붓다의 말씀을 암송으로 전달해 오다가 수백 년 뒤에 비로소 문자로 정착되었다. 오래된 경전일수록 짧은 형태의 시적인 구절이 많은데 『담마빠다』가 대표적이다. 담마빠다(Dhammapada)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즉 법구경을 말한다. 원어인 팔리어로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이란 뜻 그대로다.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 위에서 밀엄정도를 향해 옹매정진하는 총지종 스승 화령 정사(법천사 주교, 철학박사(불교전공)), 전 교

육원장)가 『법구경』을 간결하고 쉽게 역주해 책으로 출간했다. 『법구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이다.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 붓다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 즉 원음에 가깝게 남아 있는데, 화령 정사는 이를 총 26장으로 나누어 쉬운 구절로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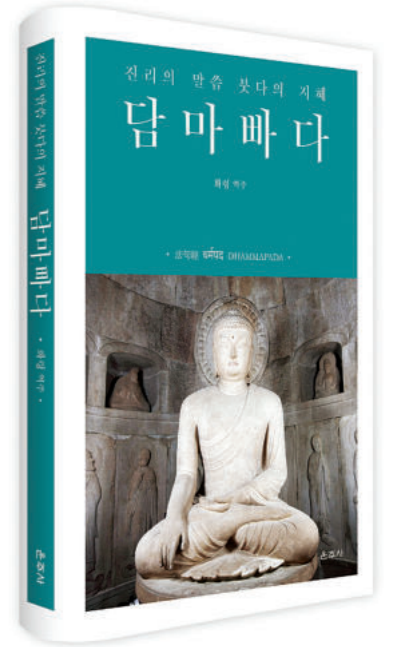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주로 한문으로 된 『법구경』이 다시 우리말로 옮겨진 번역서다.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의 불교 언어를 한문으로 그 의미를 잘 표현한 것은 매우 탁월한 번역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글로 옮기며 원래의 의미가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화령 정사는 그러한 면에 착안하여 팔리어 원전인 『담마빠다』의 짧은 원문을 원래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간결하게 직역하고 시를 쓰는 마음으로 다듬어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를 펴냈다. 글을 읽을수록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깊은 뜻을 살피볼 수 있으며, 불교라는 종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화령 정사는 “붓다의 고귀한 말씀이 훼손됨 없이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 사바세계를 건너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번역을 했다.”며 “이 간절함으로 붓다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이 땅이 하루 빨리 불국정토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발간의 의미를 전했다.

화령 정사의 저서로는 <불교, 교양으로 읽다>,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생활불교, 재가불교>, <Buddhism in daily life> 등과

「밀교비로자나불의 연구」, 「열린 불교를 위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재가불자의 삶」, 「승속을 초월한 살아 있는 불교를 위하여」 등의 논문이 있으며, 동국대학교 역경위원, 보디미트라 ILBF(국제재가불자포럼) 회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의 대중화와 교화에 힘쓰고 있다.



‘불공 잘해라’ 독후감 우수작 ③

불교총지종 안에 머무르는 인연이 모두 편안하기를

황보 정미(총지사 교도)

“종교가 뭐예요?”
“불교요.”
“어? 나도 불교인데 불교 어디예요?”
“아, 총지종이라고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총지종이요? 처음 듣기는 한데, 그게 뭔데요?”
“음.....”
총지종을 모르는 사람에게 총지종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같은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총지종의 절로 총지사가 있는데 역삼동에 있고 불상이 아닌 진언이 그려진 다라니를 모시고, 절을 하지 않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염주를 돌린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불교의 일반적인 모습은 산 속에 위치하여 스님들과 함께 커다란 금색 불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 밀교로 그런 게 있다며 얼렁뚱땅 넘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나도 잘 몰랐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어른들을 따라 다니며 보았던 절의 모습이

그것이였기에 별 의문 없이 지나갔을 뿐이었다.
<종조법설집>을 보며, 총지종을 만든 사람을 종조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알았으나, 범명이 원정이고 성씨는 손 씨이며 경상남도 밀양 출신에 군서기까지 지내다가 진각종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진각종 내 어떠한 풍파를 만나 총지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알게 된 것은 ‘불공 잘해라’라는 책을 읽음으로써였다. 어설픈 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책을 읽는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었다.
그의 생애는 역동적인 역사적 변화와 함께 어느 부분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내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아들 손순표가 겪은 역경이다. 인민재판장에서 손순표는 부르주아로 단정 지어지고, 처형을 앞둔게 된다. 아마 손순표도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순간 월북한 인민군 군관 하나가 손순표를 변호하고 나서게 된

다. 인민군 군관은 손순표의 조부와 부친의 선행을 이미 알고 있었고, 비록 손순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인연의 끈이 없었지만 그의 조상들의 덕을 토대로 그를 구해낸 것이다. 그 순간 가장 놀란 것은 아마 손순표를 것이다. 우리는 권선징악을 믿고 싶지만, 살다보면 정말 그러한 것인지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많다. 나쁜 사람이 더 평평거리며 부와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잘 살고, 착한 사람의 삶이 더 피곤하고 고달픈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다. 그러면 심기가 영 불편해지며 때로는 짜증까지 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받았던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는 것이 한 개라도 생기는 것은 하나의 진리일 지도 모르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막막하기도 하고 못 견디게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그 주고받음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 더 감명 깊었던 부분을 꼽자면, 대

성사가 밝힌 사물의 발전 법칙이다. 인연의 인은 한자로 원인(因)이고 연은 선연(緣)이다. 좋은 인과 좋은 연이 만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악한 인과 악한 연이 만나면 악한 결과가 생긴다. 이는 당연한 이치일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인과 악한 연이 만나면 우세한 편에 따라 결과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악한 인과 선한 연이 만날 때에도 우세한 편에 따라 선과 악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살다보면 좋은 인과 좋은 연이 만나는 것, 그리고 악한 인과 악한 연이 만나는 것을 합친 것보다 좋은 인과 악한 연의 조합이나 악한 인과 좋은 연의 결합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떤 쪽을 우세한 것으로 만드는지는 그 인연의 당사자인 나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을까.
총지종에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그녀는 남편과 불화가 있을 때마다 어린 자식을 업고 서원당을 찾아가 밤새 불공을 드리곤 했다. 기질적으로 남편과 잘 맞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녀가 부처님께 빈 것은 악

한 인으로 만나게 된 인연의 끈을 좋은 연으로 다듬고자 하는 간곡한 서원이 아니었을까. 으스스한 밤길의 무서움보다 그녀의 마음속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무거웠을 테고, 나는 때때로 그녀의 지난 세월을 겁 없이 상상할 때마다 모든 것이 아득해진다.
잠시 멈춰서 돌아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까마득해진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대성사님은 본인의 영민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불교의 교리를 들여다봤을 테고 본인이 터득한 가치력에 대해 열심히 설교하였다. 때로는 험한 바람을 맞아 곤란에 처할 때도 있었으나 대성사의 지혜와 진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선한 인연의 힘이 보태어져서 마침내 총지종의 체계가 다져졌다. 그래서 다행이다. 내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총지종 안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총지종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 안에 머무르는 모두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나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이달의 법문

수행과 불공으로 자신의 입을 닫고 타인을 위해 복을 지어주며 자신의 자성불을 밝히자



남해 정사



이 글은 내가 직접 겪은 당체법문의 사례이자 나의 처절한 반성문이다.

승직자가 되기 위해 2년 3개월의 시무생활을 했던 나는 드디어 총기 45년(2016년) 10월 괴산 수련원 중원사에서 진행되는 추계강공회에서 승직계를 받게 되었다. 승직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승직계를 받기 전에 부처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제자가 된 도리라 생각되어 추계강공이 열리기 며칠 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가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기로 했다.

새벽에 총지사에서 출발하여 설악산 백담사 입구에서 봉정암까지 등반을 시작하여 늦은 오후 무렵 봉정암에 도착하여 숙소 배정을 받고 봉정암에서 제공하는 공양으로 미역국에 밥을 말아 간단하게 요기를 채운 뒤 잠시 쉬었다가 불공을 하기위해 염주를 꺼내려고 하는데 염주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염주를 가방 안에 넣어왔고 등반 중간에 잠시 쉬 때 염주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정작 불공을 하려하니 염주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꼭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도 불공을 해야 하기에 염주 없이 불공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봉정암을 출발하여 다시 총지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총지사에 돌아온 후에도 염주가 없어진 것이 마음에 걸려 당시 총지사에서 나를 가르치고 교육시켜주셨던 인덕심 전수님에게 염주가 없어져서 염주 없이 불공했던 일

을 말씀드렸다. 전수님께서는 불공을 해보고 결과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 전수님에게 전화가 왔다. 전수님께서는 내일 당장 다시 염주를 가지고 봉정암에 올라가 불공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날은 추계강공회가 열리기 이틀 전이었다. 시무생활동안 전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대부분 다 따랐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일 봉정암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전수님에게 강공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아서 강공 끝나고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 전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내일 다녀올 것을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추계강공에서 승직계를 받은 지 10일 후 우려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새벽 3시경 남해 집에서 전화가 왔다. 이 시간에 집에서 온 전화에 마음이 내려앉았다. 전화 내용은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골집은 마루와 마당의 높이가 차이가 크다.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서다 어둠에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뎠다. 병원에서는 목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날 7시간이 넘는 긴 수술시간에도 총지사 법등 정사님과 인덕심 전수님이 끝까지 함께 불공을 해주셨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신경이 손상돼 자율호흡에 문제가 생겨 인공호흡기로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 했다. 누나들은 연명치료를 원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고통 없이 고이 보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연명치료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 잘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날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날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20일이 되던 날 병원에서 아버지가 하루를 넘기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두 모였다. 그날은 이상하게 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 모든 가족들과 다 이야기를 하고 정신도 맑아 보이셨다. 아버지께서 오래오래 사실 것만 같아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시간 아버지께서 가늘게 숨을 쉬시는데 눈이 감기지 않는 것이었다. 수건에 물을 묻혀 아버지 눈에 덮어 드리고 가족들 모두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을 시작했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끝나갈 무렵 가늘게 들리던 아버지의 숨소리가 드릴지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신지 21일 후 열반에 드셨다.

승직계를 받고 스승이 된 나는 부산 삼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갓 스승이 된 나를 김화자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삼밀사 보살님들이 자신의 아들처럼 잘 대해 주셔서 스승으로서의 첫걸음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봉정암에 올라가 다시 불공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해 8월 배낭에 염주, 초, 향, 쌀, 과일 등을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봉정암에 올라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를 위해 철야불공을 드렸다. 다음날 새벽에 불공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에 올라 부처님께 참회의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절을 하는 동안 내에 대한 자책과 아버지께 대한 미안함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절을 시작한지 세 시간이 넘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

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다 붓정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오는 길에 신기하게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삼밀사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아버지께서 삼밀사로 오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스승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보러 오셨다고 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사택에서 점심공양을 끝낸 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만나러 남해에 가신다고 하셨다. 내가 남해까지 태워드린다고 하니 아버지는 괜찮다며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까지지만 태워달라고 하셨다.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헤어지는데 마음속에서 지금 아버지와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아버지! 크게 불렀다. 아버지께서는 뒤돌아 웃으시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시고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버지께서 꿈에 찾아오지 않으셨다.

업이라는 것은 지은대로 일어나야 하는 속성이 있다. 그것이 인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이 닦일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 업과 인과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수행과 불공으로 자신의 입을 닫고, 타인을 위해 복을 지어주며, 자신의 자성불을 밝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수행과 불공으로 부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만이 부처님의 당체법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당체법문이 올 때와 업이 닦일 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 잘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2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중 창중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주하현은 일본 패망 후 중국 항일영웅 조상지(趙尚志, 자오상즈)를 기려 상즈시(尚志市)로 이름을 바꿨다. 하얼빈시 행정구역에 속한 곳이다. 우리로 치면 서울과 붙어 있는 과천과 같은 셈이다. 주하현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 있는 곳으로 겨울이면 휴양과 여가를 즐기는 명소이다. 게다가 위치가 하얼빈시와 목단강시(木丹江市) 사이에 있어서 교통과 교역의 길목이다. 한마디로 정미소를 경영하기에는 더할 바 없이 적합한 곳이다.

정미소 문을 열자 대성사의 빠른 일처리와 공정한 업무처리는 일대의 상인들과 동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41년 10월 대성사는 주하현 정미소 업자들의 조합인 도정조합의 이사장으로 뽑혔다. 그 다음 해에는 주하현 미곡배급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1940년부터 일제는 공출제도를 만들어 생산된 양곡을 모두 빼앗고 식량으로 잡곡과 대두박 등 사료를 대신 지급하기 시작했다. 만주 일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쌀은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식량배급제는 일본인들은 쌀로 배급하고, 조선인에게는 쌀 35퍼센트에 좁쌀 65퍼센트를 섞어서 배급했다. 이 문제는 조선인들에게 큰 저항을 일으켰다. 말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식량과 징용 등에서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 반일의 기미가 커지자 일제는 만주의 수도인新京과 하얼빈 등 대도시 지역 조선인들에게도 식량 전부를 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칫 폭동이라도 일으킬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화적인 태도는 점점 중요해진 징용과 징병 거부를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주하현을 편력하시던 시절 친구들과 함께 _가운데 대성사

종교 안에서 가치와 이념 추구의 해답을 찾다

중·일 불교, 승단 중심에서 재가자 수행과 실천 주장 시대의 요구 주시, 경전과 문헌을 구해 탐구하기 시작

이런 정황 때문에 도정조합과 배급조합에 주목과 감시의 눈길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쌀값이 오를 대로 오르고 있고, 배급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으므로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상 모두로부터 원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성사의 성품은 이런 불만과 의심을 충분히 잠재워 주하현에서 쌀 배급과 관련된 항의는 없었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익보다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대성사 가문의 가풍이었다. 그런 가풍대로 공과 사를 철저히 지켜 정미소 경영과 조합 업무를 처리해 갔다.

사업은 잘 되어 입고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상 사람과도 원만하게 지냈

으며 나름 존경도 받고 있었다. 세상은 다시 한 번 커다란 폭풍을 앞두고 있었지만, 대성사 가족은 잠깐이나마 풍족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부터 대성사는 종교,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다. 당시 중국과 일본 불교계는 큰 변화를 맞고 있었다. 청이 망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자 중국 지식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와 이념을 추구해야 할지 시대적인 고민을 한 것이다. 과거의 유교 사상은 더는 빛이 되지 못했고, 물질 중심의 서구사상과 철학은 아직 설이 보였다. 이 때문에 불교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양문회(楊文會) 등이 열어간 불교의 새로운 길은 대성사를



대성사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시로 기록했다. _생전 노트

로운 재가불교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승단 중심의 불교계에 비추어 재가자들의 수행과 실천을 주장했다. 대성사는 이런 시대의 요구를 주시하면서, 그들이 펴낸 책과 경전을 모으고 공부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읽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긴 경전과 강론이 산을 이루고 지혜는 바다처럼 모여 후일의 기반이 되었다. 것처럼 하얼빈 시절은 밀교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길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의 역할을 하였다.

달도 차면 기울고, 붉은 꽃은 바람 앞에 떨어질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일본제국주의는 가득 차올랐다가 기울어가는 시간을 맞았다. 제국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전선이 확장될수록 승리의 기쁨보다 패망의 두려움이 더 짙어갔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급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은 일본이 그리던 방향과는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전선은 팽창되고 일본군은 광기에 가까운 만행을 곳곳에서 저질렀다. 중국 난징 대학살과 관동군 731부대의 생체 실험과 학살, 싱가포르의 학살과 베트남의 식량 강탈로 인한 대규모 아사 사태 등 대성사는 단파방송을 통해 이런 소식들을 생생히 듣고 있었다. 당시 만주지역은 각종 정치사상과 이념의 용광로였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공산주의가 널리 퍼져 조선인 사이에도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반공노선은 만주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무정부주의자뿐 아니라 공화주의자, 왕정복고주의자들까지. 유물론과 유심론, 서구의 철학과 과학, 사상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고 대성사는 그런 이념과 사상의 세례를 냉철히 경험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종교는 대성사가 깊이 관심을 기울인 대상이었다. 종교의 심성에는 세상의 고통을 구원하고 살아서 혹은 사후에도 낙원을 이루려는 이념이 깔려 있다. 전쟁의 참화와 일제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종교 속에서 찾게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이 시기 대성사는 각종 종교 관련 경전과 문헌을 구해 탐구하였다고 전한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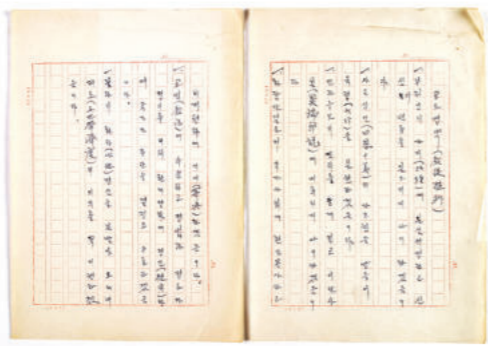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생활불교의 기치 아래 총지 도량이 들불처럼 번져가다

총지종의 역사

02. 정통밀교종단 '총지종' 창종 전국적인 교세 확산 ③



교도로서의 의무이자 전법서약인 교도맹약 원정 대성사 친필

공공서원 가운데 하나로 총지종의 교세 발전을 발원하고 교도로서의 의무이자 전법 서약인 교도맹약을 가슴에 품은 스승과 교도들은 전국 각지에 총지의 전당을 세우기 위해 매진했다. 생활불교의 기치 아래 도량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 * 교도맹약
- ①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에 일심귀명하고 신심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 ② 4은(恩)10선(善)의 가르침을 받들어 6행(行)을 실천하겠습니다.
- ③ 인과응보의 진리를 굳게 믿고 이단사설에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 ④ 화합과 단결로써 국가사회에 헌신봉사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⑤ 교법에 수순하고 정법과 정도와 정의를 세워 현세정화에 정진하며 국가와 종단을 결정코 수호하겠습니다.
- ⑥ 부처님의 화타정신(化他精神)을 본받아 5세대 제도의 의무를 꼭 이행하겠습니다.

창종 선언 사흘 후인 1972년 12월 27일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정각원 전수의 자택에 부산선교부(주교 정각원 전수)를 시작으로 12월 28일 경북 포항시 신흥동에 포항선교부(주교 록정 정사, 부주교 묘행정 전수), 12월 29일 충북 청주시 북문로에 청주선교부(주교 대자행 전수)를 연이어 개설했다.

1973년 1월 10일 경북 영일군 의창에 의창선교부(주교 불멸심 전수), 1월 16일 대전 삼성동에 대전선교부(주교 계당 정사, 부주교 총지화 전수), 3월 19일 대구시 남산동에 대구선교부(주교 환당 정사)가 문을 열었다. 3월 26일 성북구 종암동 123-26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성북선교부(주교 심인행 전수)를 개설하고 이곳에서 원정 대성사는 통리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역경, 경

전 편찬, 의례 정립에 힘을 쏟았다. 5월 16일 경북 밀양군 밀양읍에 건물을 신축하여 밀양선교부(주교 시각화 전수)를 개설하고, 6월 1일 경북 월성군 현곡면에 현곡선교부(주교 묘희심 전수)를, 8월 31일 전북 전주에 전주선교부(주교 자선원 전수)를 개설했다.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던 동대문선교

부는 9월 26일 종로구 274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했고, 교도의 집에서 운영하던 안강선교부는 월성군 안강읍 양월리 1138-3의 대지를 매입하여 신축공사를 진행, 10월 16일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12월 1일에는 현수정사의 자택에서 운영하던 경주선교부를 경주시 성동동 342번지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불단이설불사를 진행했다. 12월 20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부평선교부(주교 정혜원 전수), 12월 27일 부산시 부평동 4가에 부광선교부(주교 원당 정사)를 개설했다. 전 스승과 교도들의 합심노력으로, 1972년 8월 27일 상봉동에서 교화를 시작한 이후 정식으로 창종하기 전까지 7개의 선교부를 개설하고 12월 24일 창종한 이후 단 1년 만에 전국 주요 지역에 12개의 선교부를 개설했다.

진언밀교 전당의 교화 지역을 넓히고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은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더욱더 힘을 받았다. 교도의 집에서



1977년 10월 12일 정각사 현공불사

임시로 운영하던 전주선교부는 1974년 3월 5일 주택을 임차하여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하였고,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포항선



1977년 10월 12일 정각사 현공불사에서 합창단의 음성공양

교부의 명칭을 일제히 변경했다. 종단 소유의 사원은 ~사로, 임대 사원은 서원당으로 바꿨다.

사원의 신규 개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확장 이전과 종단 소유의 사원 건설도 가속화되었다. 1976년 3월 16일 부산시 남구 광안

선교부 명칭 일제히 변경, 소유 사원은 00사, 임대 사원은 00서원당 사원의 신규 개설과 함께 확장·이전 및 종단 소유 사원 건설도 가속

교부는 6월 20일 포항시 덕산동 120-1의 학교법인 건물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7월 25일 부산시 부산진구 암동에 서면선교부(주교 수행월 전수)를 개설하고 10월 3일 경주선교부에서는 종단 최초로 학생회를 결성했다. 청소년 교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경주선교부 학생회는 여타 사원의 학생회 결성을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밀려오는 교도들을 수용하기가 비좁아진 부평선교부는 11월 16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의 2층 건물로 옮겨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의창선교부는 1975년 1월 4일 경북 영일군 의창읍 중성동 197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규모를 확장했고, 교도의 집을 빌려 운영한 현곡선교부 또한 경북 월성군 현곡면하구리 1115번지의 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1월 14일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종단은 불교적 색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1975년 10월 29일 선

- 성북선교부 → 실지사
- 동대문선교부 → 밀인사
- 현곡선교부 → 수계사
- 경주선교부 → 국광사
- 안강선교부 → 건화사
- 포항선교부 → 수인사
- 의창선교부 → 선림사
- 밀양선교부 → 밀행사

- 부평선교부 → 입정서원당
- 대구선교부 → 원경서원당
- 부산선교부 → 총지서원당
- 동부선교부 → 응신서원당
- 청주선교부 → 해탈서원당
- 전주선교부 → 훈정서원당
- 대전선교부 → 관음서원당
- 불국선교부 → 법등서원당
- 유천선교부 → 응불서원당
- 서면선교부 → 흥포서원당
- 부광선교부 → 이화서원당

동에 유가서원당(주교: 일념화 전수)을 개설하고, 원경서원당은 3월 19일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0-12의 건물을 매입하여 개건사로 개칭했다. 3월 20일 관음서원당, 3월 29일 응신서원당과 이화서원당이 건물을 확장 이전하여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5월 22일 입정서원당은 인천시 북구 부평동 38-37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 수리하여 지인사로 개칭했다. 6월 5일 훈정서원당을 이전하였고, 6월 25일 대전시 도마동에 법등서원당(주교: 삼지화 전수)을 개설했으며, 9월 24일 해탈서원당을 이전하고 12월 2일 마산시 서역동에 광혜서원당(주교: 청신화 전수)을 열었다. 1977년 5월 20일 이화서원당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하고, 총지서원당은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의 대지를 매입, 신축하여 정각사로 개칭하고 10월 12일 불단이설 및 현공불사를 거행했다. 그리고 12월 27일 총본산 중앙사원 총지사(주교: 복지화 전수)가 불단을 개설했다.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진언은 글자 그대로 진실한 말을 뜻한다. 산스크리트에서는 '만트라'라고 한다. 진언에는 이른바 진언 외에 명주(明呪)와 다라니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자의 총칭으로 진언 내지 다라니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진언을 설명하려면 자연히 진언·명주·다라니의 설명이 필요하다.

고대 인도에서 언어가 지닌 영묘한 힘은 신격화되어 여신 바티(vati)가 되었으며, 하늘에서 계시의 책으로 간주한 성전 베다에서는 소리야말로 영원하라, 라고 부르짖었다. 학자들도 저마다 독특한 말론을 펴고 성상주론(聲常住論)·성무상론(聲無想論) 등이 주장되면서 영원한 말의 원형을 찾고자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언도, 이것들을 배경으로 탄생해, 이윽고 심화해 갔던 것이다.

만트라=진언은 원초 성전 베다에 신들에게 바치는 찬가로 등장했다. 물론 일상에서 쓰이는 말과는 차원 및 체계를 완전히 달리한다. 말 자체로서의 만트라는 동사 '만(생각하다)'에 후접자 '트라(그릇)'가 부가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사고의 그릇'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 만트라에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었다. 반복이다. 즉, 만트라는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때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것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남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낸다고 한다. 이처럼 특정 말을 낮고 낮게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일종의 특유의 정신상태가 생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즉 만트라의 저장 반복(低唱反復)으로 인해 종교적 경지

학문 과학과 주법이 일체적으로 아직 구분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명주(明呪)에 대해 붓다는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주법으로서의 명주는 부정하고 학문적 과학적 지혜로서의 명주는 자기 가르침의 에센스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학문적 과학적 지혜로서의 명주의 전형 예는 혹은 성음(聖音) 음(om)이며, 혹은 반야바라밀이

서 총지(總持)라든지 그냥 간단히 지(持)라 번역되기도 한다. 본래는 요가의 행법 중 하나에서 유래되어 마음을 일정한 장소에 연결하는 것, 즉 정신의 집중 통일을 의미하고 있었다.

불교에서도 정신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삼매경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진언과 마찬가지로 특정 구절을 무한 회수에 걸쳐 계속 외우고, 그 행

伽師地論菩薩地』(4~5세기경 성립)의 「보리분품(菩提分品)」은 통합 후 진언 내지 다라니의 기능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경전의 장구(章句)를 잊지 않는 기능. 둘째는 경전의 내용을 잊지 않는 기능. 셋째, 주술적 기능. 넷째는 '공성(空性)'을 체현(體現)하는 기능이다.

첫째와 둘째 기능은 진언과 다라니의 본래 기능이 합쳐진 것이다. 세 번째 기능은 명주에서 비롯된다. 네 번째 기능은 진언 내지 다라니 자체가 공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능이다. 이 경우에는 진언다라니를 무한 횟수 외움으로써 진언의 뜻이 가진 말의 의미의 기능을 진동시켜 마침내 해체로 몰아넣고 그 너머로 '공성(空性)'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반야심경비결(般若心經秘鍵)』에서 '진언은 부사의하다. 관송(觀誦)하면 무명을 제거하고 일자(一字)에 천리(千里)를 포함하여 즉신(即身)에 법여(法如)를 체득한다'고 하여 진언이란 읽는 글자 그대로 바로 진리를 말하는 말이며 결국 대일여래의 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6세기 이후 인도에 꽃핀 밀교가 개발한 영역에 속하게 된다.

진언(眞言)

정신의 동요 가라앉히고 삼매경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채택 진언·명주·다라니는 점차 통합됨으로써 더 큰 기능을 갖춰

인 삼매경에 빠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하다.

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마침내 자타의 구별을 초월한 신비의 영역으로 비밀스럽게 들어가게 된다.

명주는 원어를 비드야(Vidyā)라고 하고, 한역에서는 그 뜻을 따서 명주(明呪)라고 역출했다.

붓다가 참으로 주법으로서의 명주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 뱀 제거의 주법 등은 슬그머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묵인한 듯, 이것이 주법 발전에 길을 터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경우 명(明)이란 학문적 과학적 지혜를 말한다. 주(呪)는 주법(呪法)을 가리킨다. 요컨대 비드야=명주(明呪)란 학문적 과학적 지혜+주법이며 고대 인도에서는

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의 발음 다라니를 그대로 한자로 베껴진 것으로 의미를 따

진언·명주·다라니는 점차 통합됨으로써 더 큰 기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결국 밀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바뀐다. 비교적 초기 유가유식학과가 저술한 책으로, 요가의 경지와 보살도 실천의 관계를 논한 대저 『유가사지론보살지(瑜

한국밀교학회 특집

『대승장엄보왕경』의 사상 연구



이병욱 박사

소의경전(所依經典)은 신행(信行)을 비롯해 교의적(教義的)으로 의지하는 근본경전을 일컫는 말로 소의(所依)란 의지할 바 대상을 의미한다. 불교총지중에서는 밀교의 대표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과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오는 27일 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즈음하여, 불교총지중 소의경전 중 하나인 『대승장엄보왕경』 관련 지난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대승장엄보왕경』의 사상연구(발표자: 이병욱 고려대 강사, 보조사상연구원 부원장) 중 I. 서론과 II. 『대승장엄보왕경』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편집자 주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 佛說大乘莊嚴寶王經)』은 육자진언(음·마·니·반·메·흠)을 전하는 대표적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계승본과 산문본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 가운데 『대승장엄보왕경』의 산문본은 천식재(天息災)가 980년에서 1001년 사이에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천식재는 980년에 중국에 와서 1001년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한다. 그리고 티베트역은 8세기 초에 인도학자 지나미트라(Jinamitra)와 다나실라(Danaśīla), 티베트 번역가 등이 함께 번역하였다.

그런데 『대승장엄보왕경』이 포함된

산스크리트 문헌이 인도 카슈미르에 있는 길기트(Gilgit)지방에서 발견되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1931년 7월 길기트 근처에 있는 탐형 구조물에서 슈타인(Stein)에 의해 『대승장엄보왕경』이 포함된 산스크리트 문헌이 발견되었다. 이 산스크리트 문헌에 포함된 『대승장엄보왕경』은 서지학의 관점에서 보면, 7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어떤 학자는 『대승

장엄보왕경』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권에서 3권 중간까지는 관자재보살의 위(威儀)의 모습과 공덕, 그리고 『대승장엄보왕경』을 전하는 공덕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3권 끝 무렵에서 4권 사이에 육자진언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의 주요 내용은 육자대명왕 다라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6세기 이전에 계승본이 먼저 성립, 8세기 초 완성으로 판단 1권에서 3권 중간까지 관자재보살 위의를 모습과 공덕 담겨

장엄보왕경』이 6세기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또 어떤 학자는 『대승장엄보왕경』이 6세기 이전(조금 이전)에 성립해서 10세기경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게다가 티베트 전설에서는 『대승장엄보왕경』이 427년에 성립되었다고 한다(그런데 이 주장은 전설로 판단되고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승장엄보왕경』의 내용 가운데 관자재보살의 신앙, 비유(Avadāna) 계열에 속하는 설화(전설)적인 내용, 푸라나(Purāna)에 속하는 창조설 등을 감안할 때, 이 경전이 6세기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승장엄보왕경』은 6세기 이전에 계승본이 먼저 성립하였고, 뒤이어 산문본이 성립하였는데, 8세기 초(티베트역이 나오기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승장엄보왕경』은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의 질문에 의해 석존이 육자진언을 얻은 인연과 그 공덕을 말하는 경

전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권에서 3권 중간까지는 관자재보살의 위(威儀)의 모습과 공덕, 그리고 『대승장엄보왕경』을 전하는 공덕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3권 끝 무렵에서 4권 사이에 육자진언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의 주요 내용은 육자대명왕 다라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선남자여! 이 가르침은 대승 가운데에서 가장 정밀하고 순수하며 미묘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대승경전의 응송, 수기, 풍송, 비유, 본생, 방광, 회법, 논이가 이 가르침 가운데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이러한 근본의 어머니[本母]를 얻으면 고요해지고 해탈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 많은 다른 수행법[多]을 빌리겠는가? 마치 자기 집에

서 정갈한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그릇에 가득 담아놓고 햇볕을 쬐게 해서 [그 곡식을] 말리고, [그 곡식을] 찧고 부채질해서 저 곡식의 껍질을 버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정갈한 곡식을 거두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른 유가(瑜伽)의 수행법은 [앞의 비유에서] 곡식의 껍질과 같다. 모든 유가(瑜伽)의 수행법 가운데 이 육자대명왕 진언은 [앞의 비유에서] 정밀한 곡식(糠米)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지대마니보보살(持大摩尼寶菩薩: 大摩尼寶를 가진 보살)을 모시고, 무량수불(무량수여래) 왼쪽에는 육자대명왕 다라니(곧 관자재보살)를 모신다. 그리고 무량수불(무량수여래)은 4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

무량수불(무량수여래)의 왼손에는 연화(蓮華)를 가지고 있고, 그 연화 위에 마니(摩尼) 보배가 모셔져 있다. 오른손에는 염주(念珠: 數珠)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의 두 개의 손에는 일체왕인(一切王印)을 맺고 있다. 그리고 육자대명왕 다라니의 발아래에는 하늘세계와 인간세계를 두고, 육자대명왕 다라니의 오른손은 향로를 잡고, 육자대명왕 다라니의 왼쪽의 손바닥에 발우를 두는데, 그 발우에는 모든 보물이 가득 차 있다.

만다라의 네 개의 귀퉁이에 사대천왕(四大天王)을 나열시키고, 만다라 밖의 네 개의 귀퉁이에는 4개의 현병(寶瓶: 재물을 모아서 다른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병)을 두고, 그 4개의 현병에 여러 종류의 마니 보배를 가득 채운다.

소	의	경	전			국	가	대	표
상			화	양	연	화			
공	자		위		기		장	희	빈
인		잠	복			법	구	경	대
		겨	자					각	주
			리	어	카		계		기
희	사			네	딜	란	드		분
노		과		이			라	디	오
애	니	메	이	션			이		열
릭		기				운	칠	기	삼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위대한 딱창의 역경사 세랍린첸

티벳불교의 4대종파는 모두 나란다마하 위하라를 중심으로 석가모니부타의 인도불 교 계승을 공식적으로 표방한다. 교육체제 로서 나란다대학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석 존께서 심은 불법의 전통을 최종적으로 결 집하고 완성한 지표이자 중심이기 때문이 다. 4대종파 가운데 겐룩빠와 사까빠가 현 밀겸수의 온전한 모습을 전하는데 특히 사 까빠의 경우 교학과 인명학의 탁월함으로 인해 다른 종파의 존경을 늘 받아왔다. 지 금도 4대종파의 학생과 요기들은 종파를 가리지 않고 왕래하며 종학을 서로 연마한 다. 인도불교사를 돌이켜보면 불교의 학생 과 외도의 학생들이 논쟁의 규칙을 정해 서로의 날선 종학을 겨룬 것을 보면 진리를 구하는 위대한 인간정신의 열린 의식의 모 범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적어도 무슬림에 의해 폭력으로 사라지 전까지 그랬었다.

종카빠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 에 사까빠의 조사로 '딱창의 역경사'로 알 려진 세랍린첸(1405-1477)이라는 분이 있 다. 전기와 관련해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간 략히 요약하면 1405년 을유년 알독 딱창지 역의 랑도 캉말에서 태어났다. 세랍린첸의 전기는 1470년이 되어서야 기록이 되었는 데 어릴 때부터 사원을 흠모해 3살때 역경 사 갑축뽕상빠로부터 수계를 받고 5살때부 터 다라보살 예찬을 배웠다. 어느 날 친구, 이웃들과 『문수진실명의경』을 영송하 고, 절에 가서 공양을 올렸는데 그날 꿈에서 중국의 오대산을 보고 등장하는 현몽을 하 였다. 이것은 훗날 다섯 가지 중요한 성취를 모두 이룰 것이라는 예시로 훗날 해석하고 있다. 8살 때 아사리 톱겔로부터 8년간 공 부했는데 이때 현교와 밀교, 티벳에서 중 요 시했던 9가지 무예를 끝고루 익혔다. 특히 캉지역에서 법주로 알려진 닥빠상빠로부터 많은 밀교관정을 받았다.

20세가 되어 쟁계 겐첸 뽕상빠로부터 비 구계를 받고, 장지역의 최콜사원에 들어가 현교의 많은 교학들을 섭렵했다. 1431년 최 콜사를 떠나 데뽕사원에 들어가 사우언의 설립자인 잠양 따시 뽕텐으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6개월후 데뽕사원을 떠나 상뽕 뉴욕



세랍린첸

의 뽕뽕 나란다 사원에 가서 사원의 설립자 인 톱첸 세자 꾀릭에게 배웠다. 세랍린첸이 배운 현교의 탁월한 교학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었지만, 1436년 '당대 학생 중 최고의 학생'으로 일컬어지는 왕축 소남 린첸 뽕을 만나서는 갈라차끄라판뜨라를 배웠고, 3년간 깊은 경지를 수습한 다음 훗 날, 1455년 이에 대한 유명한 주석을 집필 하였다.

딱창의 역경사가 유명해진 것은 당대 넘 볼 수 없는 종카빠의 주장에 토를 달았기 때 문이다. 종관과 논리학을 주제로 한 딱창의 비판에 대해 종카빠를 옹호한 것은 데뽕대 승원 고망사원대학을 설립한 유명한 학생 잠양쉐빠이다. 방한한 적이 있는 유명한 제 프리흠킨스의 제자인 스텝턴대학 이종복 교수는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를 요약하면 종카빠는 무자성에 대한 인식 에 대해 논리적 접근과 무명으로부터 생사 에 유전하는 자아의 성찰, 마지막으로 요기 지에 의한 무분별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 장한 반면 딱창의 역경사는 첫 째는 공덕을 닦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적 사고에 의 한 무아를 연마하며, 세 번째 무분별의 일체 지를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잠양쉐빠는 무 분별지의 체득은 논리적 분석과 요기지의 실체를 체득하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이러 한 논란들은 이론과 경험, 즉 논리와 유가라

“논리와 유가라는 불교수행의 양 바퀴에 대해 딱창의 역경사는 공덕의 적집을 포함해 보다 넓은 도차제의 시야와 범주를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는 불교수행의 양 바퀴에 대해 딱창의 역경 사는 공덕의 적집을 포함해 보다 넓은 도차 제의 시야와 범주를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종복 교수의 주장대로 어느 전통의 우월 을 논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후대의 학생들은 보다 세밀한 이론을 발전 시킬 수 있었다.

딱창 역경사의 삶은 불교학자의 연구가 끝내 무분별지, 또는 요기지의 수습으로 나 야가 성취하는 것으로 밀교에 그 방편이 있 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제뽕 린첸 강 사원을 설립하여 여기서 밀교 승원대학 의 교과과정들을 규정하였다. 탁월한 스승 아래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어 이름을 날렸 는데, 딱창의 역경사는 고향 근처에 유명한 팔링 최대사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말년을 주석하였다.

제자 가운데는 겐룩의 학생 놀상가초 (1423-1513)를 비롯해 헤아릴 수 없는 제자 들이 있었다. 딱창의 역경사 세랍린첸은 당 대 겐룩빠를 뛰어넘는 방대하고 현교 연구 의 중심을 이루하였고, 지금도 겐룩빠와 사 까빠는 날선 교학을 경쟁하며 서로 발전하 고 있다. 딱창의 역경사는 1477년 입적하였 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유작은 『일체지오 처(一切智五處)』였으니 그가 어릴 때 중 국의 오대산에 등장했던 꿈을 성취하고, 그 최후의 유작을 남긴 것이다.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의 교훈

염량세태(炎涼世態)라는 말은 <명심보 감>에 나오는 염량처동(炎涼處處同, 뜨거웠다 식은 것은 어디든 똑같다)이라 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다.

중국 사마천의 사기 '맹상군의 이야기' 에 보면 전국시대 맹상군이라는 자가 위 세를 떨치자 그를 찾아오는 빈객이 3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제나라의 왕 은 맹상군의 위세가 이처럼 커지자 그를 내쫓았고 그러자 맹상군의 집에 빈객들 의 발길은 끊기게 된다. 후에 왕이 맹상군 을 다시 불러들여 재상에 앉히자 떠났던 식객들이 다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염량세태란 권세가 있을 때에는 별때같이 모여들고 권세가 사라지게 되 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언제 그랬느냐 는 듯이 떠나버리는 세태를 비유하는 말 로 쓰인다.

요즘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건강 불안증, 금융권의 고금리 시대, 세계 경제의 불안 정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등 으로 많은 고민들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이다.

이렇다 보니 사는 인생살이 자체가 난관 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 세상은 더 우면 모이고 추우면 멀어지는 세상의 인 심이란 뜻인 염량세태(炎涼世態)라서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 만, 몰락할 때는 썰물처럼 빠져 나가 버리 는 것이 세상인심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인생이란 남이 나를 우선하지도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도 않는다. 내 가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으면 조금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는 것 같지만 내 지위나 돈의 규모에 변화가 생길 때 그들은 언제 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세한도(歲寒圖)'에 《논어》의 '자한' 편에 나오 는 말인 공자의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세한연후 지

송백지후조야)', 날씨가 추워지고 난 후 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도 뒤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 로 세상이 어려워진 뒤에야 비로소 참된 선비의 진면목(眞面目)이 드러난다는 뜻 이다.

집안이 가난할 때라야 비로소 좋은 아 내가 생각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라야 비로소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 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온다. 그렇다. 어려울 때 도움 을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이와 비슷한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후한서(後漢書)》 <왕패전(王霸傳)>에 나오는 말로 써 광무제(光武帝) '유수'의 말에서 유래 했는데,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는 모 질고 세찬 바람이 불어 볼 때라야 비로소 강한 풀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어렵고 위험한 처지를 겪 어봐야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아픈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함이다. 곱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더 멀리 우아하게 울 려 퍼지게 하려면 종(鐘)이 더 많이 아파 야 한다.

그리고 세익스피어도 "아플 때 우는 것 은 삼류이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이 며, 아픔을 즐기는 것이 일류 인생이다" 라고 했다.

무릇 우리는 성장하거나 발전하고 성 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많이 아파야 힌 다. 그래야만 마땅히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고통 없는 영광은 결코 존재하 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은 투철하고, 실천 은 용맹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방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다. 우 리는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의 교훈을 되새겨 '염량세태(炎涼世態)'의 사고방식 을 멀리하는 가치관을 세워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8/22	10,000	
	보명성	9/19	10,000	
	우인	9/19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8/22	20,000	
	상지화	8/22	10,000	
	수중원	8/22	10,000	
	밀공정	8/22	10,000	
	총지화	8/22	10,000	
	법수원	8/22	10,000	
	선도원	8/22	10,000	
	법지원	8/22	10,000	
	일성혜	8/22	10,000	
	사홍화	8/22	10,000	
	안주화	8/22	10,000	
	진일심	8/22	10,000	
	시각화	8/22	10,000	
	최상관	8/22	10,000	
	연등원	8/22	10,000	
	자선화	8/22	10,000	
단음사	승효제	9/19	10,000	
	하현정	9/16	10,000	
	장정숙	9/16	10,000	
	신말심	9/16	20,000	
	단향사	지홍	9/10	10,000
		이수형	9/10	10,000
	덕화사	이진성	9/1	10,000
		법상인	9/19	20,000
	동해사	법선	8/22	10,000
		김진화	9/6	10,000
송인근		9/19	10,000	
법선		9/19	10,000	
만보사	강명순	9/14	10,000	
	정정희	8/30	5,000	
밀인사	반아심	8/31	10,000	
법천사	박미경	8/25	10,000	
	인선	9/19	10,000	
법황사	정계월	9/19	10,000	
	승원	8/22	10,000	
벽룡사	요원화	8/22	10,000	
	요원화	8/22	10,000	

벽룡사	승원	9/19	10,000
	요원화	9/19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8/25	10,000
	남영애	9/1	30,000
	박팔남	9/10	10,000
	최영미	9/13	50,000
	김지은	9/13	20,000
	김용기	8/25	2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8/26	50,000
	수인회일동	9/14	50,000
수인사	법상	9/19	20,000
	이순영	9/19	20,000
시법사	해광	9/19	10,000
	무명씨	8/22	20,000
실보사	박현정	8/24	40,000
	박성호	8/25	10,000
	이순옥	8/25	10,000
	황성녀	8/29	10,000
실지사	유승우	9/7	10,000
	이도현	9/7	10,000
	이루나	9/7	10,000
	이서현	9/7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8/28	50,000
		9/1	5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8/29	50,000
	이성미	9/14	50,000
운천사	반야화	9/15	30,000
	하재희	8/25	50,000
일원어린이집			

일원 어린이집	구미자	8/31	10,000
	연영구	9/5	10,000
자석사	도우	9/5	10,000
	지현	9/5	10,000
정각사	김점남	8/30	20,000
	탁상달	9/3	10,000
자인사	안한수	9/4	10,000
	유승태	9/11	10,000
초록 어린이집	김미혜	9/11	10,000
	이지희	8/25	50,000
총지사	록경	8/25	20,000
	신성희	9/7	10,000
	신현태	9/7	10,000
	백귀임	9/13	10,000
	최영아	9/13	10,000
	김정환	9/13	10,000
포레스터7 어린이집	록경	9/13	20,000
	최유정	8/31	50,000
화음사	강점이	8/24	10,000
	원당	8/24	10,000
	묘심해	8/24	10,000
	무명씨	8/30	10,000
	박욱자	9/4	10,000
	강승민	9/13	5,000
힐스어린이집	김성찬	9/15	10,000
	원당	9/19	10,000
	묘심해	9/19	10,000
	곽방은	9/13	50,000

생명살림
경건이야기③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보현행원에 담긴 생명이야기③

“수희공덕은 다른 사람이 복을 짓는 것을 진심으로 찬탄하고 기뻐하면 그 복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이다.”

선남자여, 또한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수만큼 많은 여러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부처님께 복덕을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수만큼 많은 겁을 지내고 날날 겁마다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수만큼 많은 몸과 목숨을 버리고...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내지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나누어 주실 때까지의 모든 선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길 바라며 저 시방 모든 세계의 육도에서 네 가지로 생겨나는 모든 종류의 중생들이 짓는 한 티끌만 한 공덕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며...

열 가지 보현행원 중 다섯 번째 수희공덕원(隨喜功德願)이다. 불교의 독특한 교리 중 하나인 수희공덕은 다른 사람이 복을 짓는 것을 진심으로 찬탄하고 기뻐하면 그 복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우리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정반대에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라 하기 쉽다. 그러면 공동체는 다툼과 경쟁과 갈등으로 치닫는다. 불교에서는 공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개인적으로 짓고 받는 업을 개업(個業) 또는 불공업(不共業)이라고 하고 공동으로 짓고 받는 업을 공업(共業)이라고 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

는 연기(緣起)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짓고 받는 개업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업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희찬탄하는 것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다. 수희는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로 불이(不二)의 연기, 공(空)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가 수희공덕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서로 돕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수희할 것인가? 보현보살은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나누어 주실 때까지의 모든 선근을 다 함께 기뻐하겠다고 했고, 또한 육도 윤회하는 4생(四生: 胎卵濕化)으로 생겨나는 모든 종류의 중생들이 짓는 한 티끌만한 공덕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필자는 보현행원의 생명가치에 대한 큰 가르침을 받는다. 태와 알과 습기로 태어나고 화하여 태어난 모든 종류의 중생이 짓는 한 티끌만한 공덕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가 실로 깊게 다가온다.

영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Normal Is Over)”는 기후변화, 식량 생산 통제, 천연자원 고갈, 소득 불평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다루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에서는 핵심동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종이 다른 종들의 생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끼리가 풀을 헤치고 지나가면 다른 작은 동물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코끼리의 털 소화된 배설물은 다른 많은 동물들의 좋은 먹이가 된다, 마찬가지로 벌은 수많은 식물이 열매를 맺고 종을 번식하고 또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인간은 생태계에서 핵심종이 아니다.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다

른 생물종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지금 인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핵심 인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인공적인 것들에 둘러싸여서 자연에서 멀어져 있다. 그래서 과거 농경사회처럼 자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기도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상품시장경제에서는 돈이 가치를 대신하므로 물질에 담긴 고유한 가치를 덮어 버린다. 우리에게 감사함을 빼앗아 가고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게 만들었으며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외롭고 불안해진 고립된 자아는 그래서 더욱 돈에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보현행원의 수희공덕품은 더욱 소중하다. 지금 우리의 일상을 성찰해보자. 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실은 자연에서 왔으며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영화에서도 잠시 소개되지만 남아프리카 반투어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말이라고 한다. 불교의 연기사상과 상통한다. 경쟁하고 대립하는 사회를 서로 돕고 협동하는 사회로 만드는 말 ‘우분투’처럼, 우리에게 보현행원의 수희공덕원이 있다.

누군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공덕, 인간뿐만 아니라 작은 생명체의 티끌만한 공덕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는 공덕을 짓겠다고 원하고 실천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진다. 그리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가 전해진다. 우리 사회가 덜 경쟁적이 되고 존재의 가치를 덮어버리는 돈에 덜 중독되고 모든 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며 인간 이외의 존재들까지도 존중받고 배려받는 세상이 된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마다 빛나는 별이어라



저자 이행정(장준희)
판형 150*210mm 무선 226쪽
도서출판 진어
가격 16,800원

<저마다 빛나는 별이어라>는 모든 존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진각종 기로스승 이행정 전수의 법문 집이다. 교화정년 37년을 맞이하여 그간 펼쳐놓은 글들을 잘 다듬고 엮어 한권의 책으로 내놓았다.

이 책은 저자가 수행자로서 교화하며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느끼는 깨달음과 가르침의 면면을 30여 편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글 중간에 저자가 수행의 일환으로 직접 그린 민화와 함께 1991년 저자가 인도 불적을 답사하며 작성한 답사기 및 ‘티베트 사자의 서’ 서평을 부록으로 실어 가치를 더

했다. 초기경전 『숫타니파타』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태어날 것이나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의 구절에서 감응을 받은 저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책 제목을 「저마다 빛나는 별이어라」로 선정했다고 말한다. 이는 결국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란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남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라는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따뜻한 언어로 전하고 있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9/1~30)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2	아사나 브라나야 마무드라 반다	한국요기출판사	사라스와띠
3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계의 보배구슬	오타쿠	김성철
4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알아차림	관정
5	청정도론(3)	초기불전연구원	붓다고사/대림
6	딱돌해설서	금빛소리	중암선해 역저
7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하늘호수	초펠 편역/게시 소남
8	관음도독	나라연	황상준 지음
9	스님의 그림자	운주사	효록
10	불교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민족사	마성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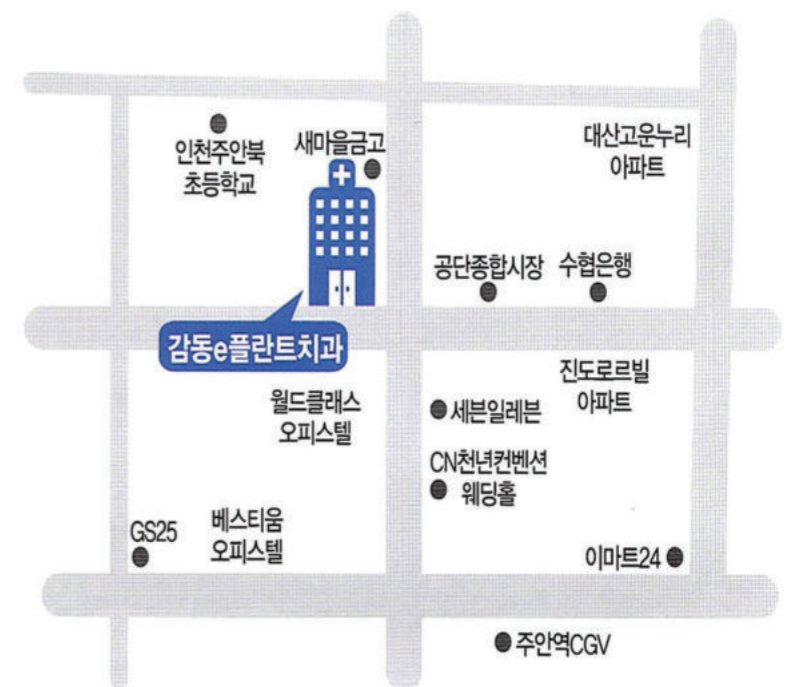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추석맞이 제3회 두뇌장사선발대회 성료

석관실버, 어르신 인지력 사회성 향상에 도움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정사)이 운영하는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2022년 추석 맞이하여 지난달 8일 센터에서 제3회 두뇌장사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3년 만에 개최된 대면행사로 많은 이들의 기대와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또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록경 정사를 비롯한 공동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태수 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두뇌장사선발대회는 센터 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특화사업인 '두뇌건강증진센터'에서 퀴즈 풀이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력과 사회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행사 취지에 걸맞게 이날 참여한 40여명의 어르신들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 치열한 두뇌 게임을 펼쳤으며 패자부활전을 거쳐 최후의 두뇌장사로 선정된 우승자는 인증서와 함께 왕관 수여 및 부상으로 안마기를 받았다. 아울러 50만원 상당의 식사권과 다양한 상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 및 선물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가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 상임이사 록경 정사는 이날 축사에서 "오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모두 부처님이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극복과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서원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한가위 덕담과 함께 향후 운영의 뜻을 밝혔다.

김상미 기자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㉑			㉒			②㉑			
			③		㉒				
④							⑤㉒		㉒
			⑥㉑			⑦			
	⑧						⑨	㉑	
			⑩		㉑	㉑		㉒	㉑
⑫㉑			⑬			⑭			
		㉑					⑮		
⑮									
						⑯			

가로 열쇠

- ① 불교에서 신행을 비롯한 교의적으로 의거하는 근본 경전
- ② 김연아, 김연경, 우상혁, 손흥민, 황선우
- ③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왕가위 감독 영화
- ④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유가의 시조
- ⑤ 연산군의 어머니, 조선의 경국지색이자 악녀
- ⑥ 드러나지 않게 숨음, 00근무
- ⑦ 진리의 부처님 말씀을 요약하여 담은 경전
- ⑧ 머스타드 소스
- ⑨ 은백색의 고체 금속
- ⑩ 사람이 끄는 바퀴가 2개 달린 작은 수레
- ⑪ 신문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
- ⑫ 불교에서 기쁘게 재물을 베풀어 내놓는 것
- ⑬ 풍차와 튜립의 나라
- ⑭ 방송국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잡아 이것을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계
- ⑮ 디즈니 인어공주,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 ⑯ 운이 칠 할이고 재주나 노력이 삼 할이라는 뜻

세로 열쇠

- ① 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㉑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
- ㉑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꽃
- ㉑ 원인과 결과의 법칙, 불교의 핵심 사상
- ㉑ 유·불교 경전 및 책을 보관하기 위해 사찰 내에 지은 건물
- ㉑ 00 잡으러다 초가삼간 태운다
- ㉑ 곤충 채집, 고추000
- ㉑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현상에서 걸리는 시간 간격
- ㉑ 어버이날 꽃
- ㉑ 달이 낳은 알
- ㉑ 넷으로 나뉘고 다섯으로 찢어진다는 뜻
- ㉑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 ㉑ 청어나 공치를 방동과 해동을 반복해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겨울철 별미
- ㉑ 머리 말리는 기계

'투명한 선발로 아이들 밝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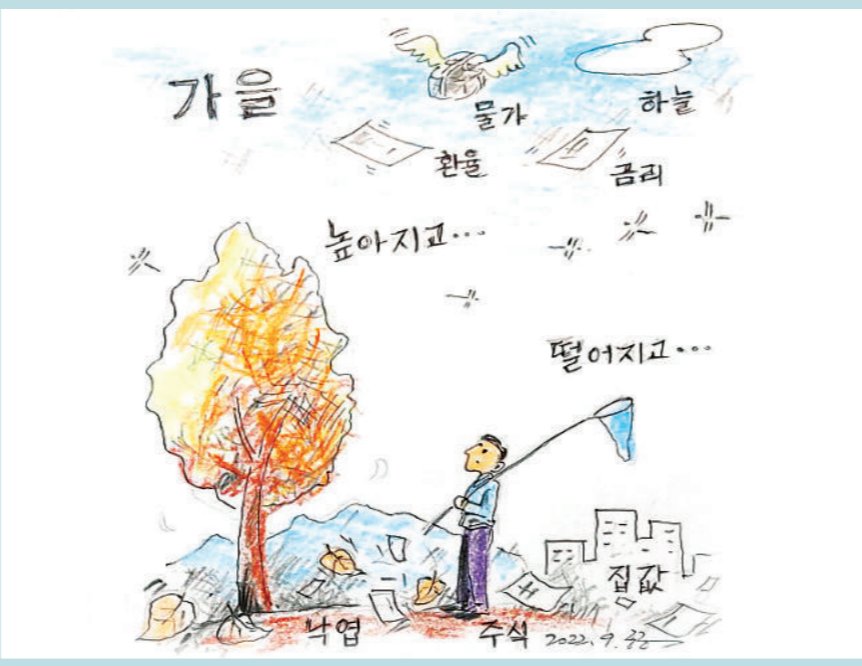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공식인 산하기관 기관장 선발을 위해 지난달 1일 역삼동 본산 통리원에서 응시자 검증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마무리 했다. 재단은 산하 기관장과 외부인 1인을 포함한 면접단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에 만전을 가했다.

위드다르마 동행에 '감사합니다'

법천사(화령 정사), 벽룡사(묘원화 전수), 정각사(법일 정사), 단음사(남해 정사), 정각사 김정애 교도, 수인사 김용오 교도, 밀인사 김지희 교도, 김봉래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신진욱 철학박사, 김대곤 시인, 이옥경 작가, 방귀희 작가, 조세훈 작가, 김재동 연구원(이상 집필진) / 공덕성, 김민자, 김성민, 김윤서, 김종철, 김희곤, 법공, 성수진, 성화사신정희, 손경옥,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이태림, 이연수, 이인성, 이태남, 이혜성, 자선화, 정법계, 정재봉, 정화연, 주건우, 총지화, 한철수(이상 범보시 후원, 작성기준 총기 51년 위드다르마 10월호, 명단 가나다순)

총지스캐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총지사 故 윤정옥 교도 (계유생, 9월 11일 입적)

수인사 故 박화자 교도 (을유생, 9월 21일 입적, 수인사 정원 전수 모친, 범상 정사 빙모)

건화사 故 장경필 교도 (신미생, 9월 21일 입적, 자녀 정현정, 정연경)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용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부안경남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중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승연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법행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삼일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람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곡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길5길 12 (효자동17가)	(063)224-4358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윤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법행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곡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길5길 12 (효자동17가)	(063)224-4358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혜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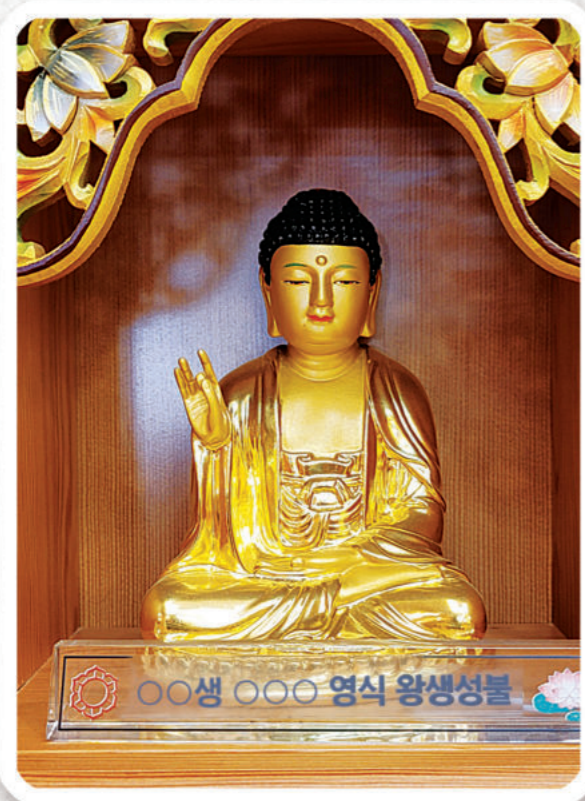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

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각사 득락전에는 극락왕생과 성불을 서원하는 아미타부처님과 좌우 협시 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영식(영가) 원불

조상영식, 조부모, 부모 등 영식(영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명복과 왕생성불을 개인 원불에 모셔 기원합니다.

영구불 1기당 100만원(부부에 한해서 한 불상에 모실 수 있음)

기제사 불공

설, 추석, 기제일 등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처님께 추천 불공을 드립니다.

소원·축원불

불상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과 소원성취,
재난소멸 등을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축원불 1기당 10만원/1년)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